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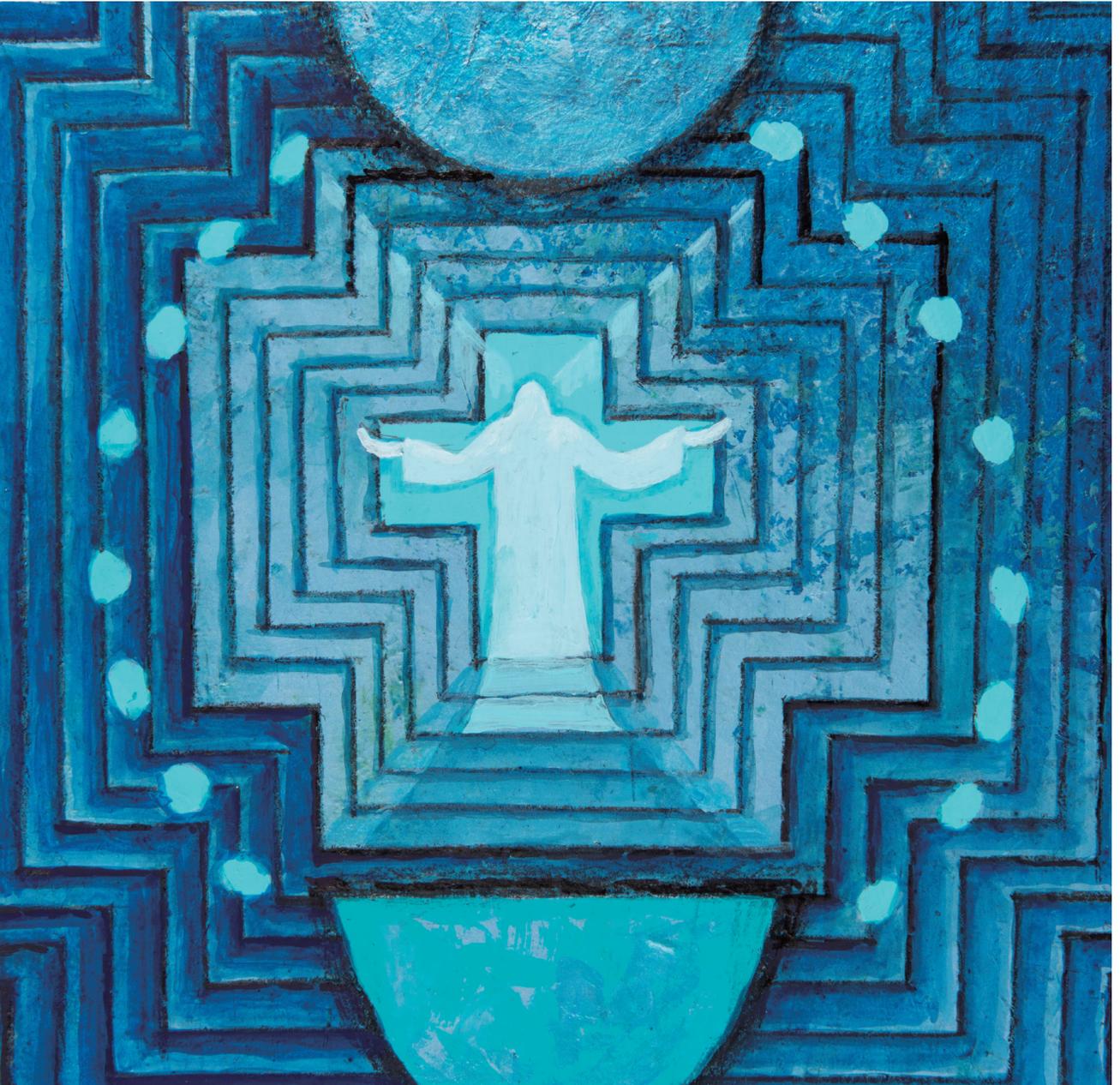


대구주보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으며

연중 제21주일 2018. 8. 26.(나해) 제2121호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인쇄 | 대건인쇄출판사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전화 | (053)250-3048~9
홈페이지 | www.daegu jubo.or.kr 이메일 | jubo@dgca.or.kr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요한 6,68)

듣기 거북한 말씀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요한 6,60)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투덜거리며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듣기 좋고 달콤하게만 들립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거북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이면 좋겠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듣기 거북한 말씀도 있고, 귀에 거슬리는 말씀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된다면, 그 말씀은 왠지 피하고 싶고 거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라는 말씀 역시 왠지 피하고 싶고, 듣기 싫은 잔소리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거북하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에게 거북하게 다가오는 말씀일수록, 그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거북하게 들리는 말씀일수록, 우리는 더욱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은 듣기 거북하기도 하고, 귀에 거슬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잔소리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고집하며 소위 부모님과 선생님의 ‘잔소리’를 따르지 않았을 때 후회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북하고 귀에 거슬리더라도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북하고 귀에 거슬린다고 투덜거리는 제자들이 되기도 하는, 오히려 거북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



이관홍 바오로 신부 | 가톨릭근로자회관장

우리의 바람

임사비나 · 김요엘 수녀 | 예수성심시녀회

태국은 국민 대부분이 불교신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안에 불교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신자라 해도 실제 삶은 불교적 일 때가 더 많고 가톨릭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다니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어느 날 공소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신부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날 미사 전에 한 자매님이 고해성사를 보러 오셨답니다. 그런데 고해대 앞에 장궤를 하시고는 아무 말씀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하고 물으셨는데 침묵. 그래서 다시 '죄를 말씀하세요.' 했는데도 여전히 침묵... 한참을 그렇게 침묵 중에 있다가 신부님이 '하느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다 아실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사죄증을 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어찌면 그분은 사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 용서를 받는다고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지만 교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곳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방콕에서 버스로 13시간 정도가 걸리는 곳. 그 거리만큼이나 방콕과 이곳은 너무 다릅니다. 산이 하나도 없이 높은 빌딩만 가득했던 방콕과 달리 이곳은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산이 보이고, 넓은 평야가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나 음식, 문화... 모든 것이 달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방콕 수녀원에 살 때는 음식을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곳의 음식은 아직까지 먹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카우니아우'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쌀

밥 같은 것이 있어서 먹기 힘든 음식이 나올 때는 카우니아우와 태국 소스(고추장과 맛이 거의 비슷함)에 비벼 먹습니다. 아이들은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아침과 저녁을 센터에서 먹는데 기도를 하고 자리에 앉아 식사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을 외칩니다. 그중 하나가 "밥은 많이 많이, 반찬은 적게 적게"입니다. 아이들은 씩씩하게 이 말을 외치는데, 이 말을 듣는 저희는 마음이 아픕니다. 태국은 옛날부터 쌀이 주식이었고, 이모작이 가능한 곳이라 쌀이 흔합니다. 그래서 센터에 쌀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외 찬거리는 구입을 해야 하는데, 센터 살림이 어렵다 보니 넉넉하게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한 명당 한 끼에 정해진 금액이 5바트(한화 약 171원)입니다. 보통 이곳 서민들이 먹는 한 끼 식사의 가격이 35~40바트 정도인 것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돈이 없기도 하지만 신부님의 지향도 담겨 있습니다. 센터에 오기 전에 아이들은 더 가난하게 살았던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쌀이 없어서 굶거나 하루에 두 끼만 먹고 살았고, 그마저도 밥을 물에 말아서 먹거나 우리나라 간장 같은 소스에 찍어 먹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처음 이곳에 와서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우유를 먹고 배탈이 나는 아이들이 많았답니다. 신부님은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너무 잘 먹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때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덜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찬은 늘 한 가지만 준비합니다. 그 한 가지만이라도 좀 더 영양가 있는 것으로 먹고 싶은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필문**



우리 본당
화이팅!



멋있게, 지혜롭게, 다정하게!

김영숙 율리아 | 성서본당 홍보기록단장

아름다운 전설과 다양한 일화를 가진 대구 서쪽의 와룡산 가장자리, 경치 좋고 안락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성서본당은 신자들의 지속적인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두가 소통하는 멋진 본당으로 교구민 모두에게 자랑할 만합니다.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이라는 2018년 교구 사목교서를 지침으로 더욱 더 성장해가는 본당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전 신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자들의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과 확대 간부회의 그리고 연수회를 통한 심의 및 토의 등의 과정을 거쳐 "1인 1단체 가입과 구역의 활성화"라는 2018년 목표를 설정하여 주요 실천사항들을 하나씩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1인 1단체 가입을 위한 주요활동으로 단체 가입 현황 파악, 제 단체의 날 지정(상반기, 하반기-연 2회), 본당 및 제 단체 홍보책자 제작, 제 단체 연중 활동수립, 취미동아리 창설, 청장년합동 단체 창설을 계획하였고, 둘째, 구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실천사항으로 반, 구역미사, 구역별 형제 모임,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구역별 연도 대회, 본당 체육대회, 견진성사, 성탄 축하 행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4월 29일 상반기 "제 단체의 날"에는 공동체 중식 이후 성당 앞마당에 18개의 제 단체 부스를 만들어 각 단체별로 지금까지 반성을 통해 앞으로 추진할 발전적 방향설정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며, 제 단체별 퍼포먼스를 통하여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 단체에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였으며 타 단체를 위해서도 각자 준비한 음식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나누어 먹는 모습은 무척이나 정겨웠습니다. 특히, 제대회에서는 도서 및 성물들을 원가에 판매하는 행사를 가져 큰 호응을 얻었고, 본당 동아리 '그룹사운드'의 공연에 맞춰 남녀노소 모든 신자들이 함께한 한마당 어울림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큰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매월 2, 4주 교중미사 중에는 각 제 단체가 홍보시간을 가짐으로써 지속적인 활성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제 단체의 날" 행사에서는 성서본당 전 신자가 참여하는 멋진 제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인 이상 있을 때면 함께 외치는 "성서본당 멋지다!"라는 구호처럼 "멋있고, 지혜롭고, 다정한 본당"에 누구에게나 "가고 싶은 본당", "보고 싶은 교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서본당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꺄**

당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로 하여금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우시어
 정의를 존중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
 저를 이기고 충성을 지키며
 용기으로써 당신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고요함 속에
 당신과 만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가난한 마음을 주소서.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당신 안에 살 수 있도록 믿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
 당신을 잘 알지 못하나
 그래도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나
 주님께서서는 저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 다그 하마술드 -

(1905~1961, 스웨덴의 경제학자이자 정치가, 제2대 유엔 사무총장, 노벨평화상 수상)

지혜의 숲

다시 태어남

“과거를 깨끗이 끊어 버려라. 그러면 깨우치게 될 것이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점차로 이루어진다. 깨달음은 순간적이다.” 후에 스승이 말했습니다.
 “한 번에 꺾충 뛰어라! 절벽 사이의 틈을 몇 번에 나누어서 건너될 수는 없다.”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여호 24,1-27,15-17,18나 **제2독서** 에페 5,21-32 **복음** 요한 6,60나-69.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입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교구장 동정

- 8. 19(일) _ 최취인(바오로) 신부 은퇴미사
- 8. 25(토) _ 평신도위원회 성지순례



총대리 동정

- 8. 19(일) _ 원동수(바오로) 신부 은퇴미사

2018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

“우리는 생태적 회개와 절제의 덕이 필요합니다.”

※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2018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행사 개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5년 전 세계의 모든 신자가 생태적 회개를 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 투신 하라고 요청하시면서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이에 한국 교회에서는 첫 목요일 성시간을 고려하여 2018년에는 9월 6일에 거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1. 각 본당에서는 기도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co.kr)에 게재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매일미사 9월호에 수록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9월 1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미사 혹은 단체 모임 전후에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생명의 말씀을 주는 복음을 한두 장이라도 읽겠습니다.”



미 사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27일(월) 10:30 범어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27일(월) 11:00 계산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27일(월) 11:00 도량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8월 후원회미사	8월 27일(월) 11:00 수성성당

대리구

3대리구 전례꽃잎이 기본형과정 모집
 일시: 9.6~12.20 매주 목
 장소: 3대리구청
 수강료: 40만원(재료비 포함)
 문의: 3대리구청, 641-5678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9.2(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김낙윤 신부,
 (010)8715-2846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일시: 매월 둘째주 토 15:00~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본원
 문의: (010)8353-2323

9월 한티 피정
 영적충만(영성 피정): 9.8(토)~9(일)
 그대 어디로 가는가(순례음악): 9.15(토)
 한티가는 길(순교영상): 9.15(토)~16(일)
 외딴곳에서 좀 쉬자: 9.29(토)~30(일)
 문의: www.hanti.or.kr, (054)975-5151

교육 | 모집 | 기타

성바오로수도회 말씀으로 마음치유
 일시: 9월부터 10주간
 시간: 화 10:00~12:30
 금 19:00~21:30
 대상: 남, 녀(30대~6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서원, 256-4592

Lectio Divina 성경 모임
 개강: 9.4 매주 화 19:00
 장소: 베네딕도수녀원 베네인카페
 대상: 35세 이하 자매
 문의: (010)8519-3431

바틀로교육센터 하반기 강좌
 몸기도 힐링반(8회기)
 일시: 9.4~10.30 매주 화 10:00~12:00
 피규린 성경공부반(10회기)
 일시: 9.6~11.8 매주 목 10:00~12:00
 신청: 783-9817 / (010)3360-9817

SPC에니어그램 1단계 교육 개강
 일시: 10.2(화) 10:00~12:00
 10.4(목) 19:00~21:00
 교육기간: 주 1회 2시간 총 8주 16시간
 방법: 영성도구로 활용한 자기내면여정
 문의: 254-2664 / (010)3228-3330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아시아 최초로 좋은 학교(Q,S) 인증
 일시: 9.5(수)~19(수)
 장소: 양업고등학교
 문의: (043)260-5076 / 5078

2019 목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9.10(월)~14(금)
 모집: 간호학과 86명,
 사회복지학과 16명, 유아교육과 14명
 인터넷 원서접수처: 유웨이
 입학상담: (061)280-5108 / 5150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야마구치
 주관: 가고시마교구 /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005-9028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치매, 중풍 어르신 요양원입니다.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2018년 대구주보 하단광고 추가 모집
 날짜: 12월 30일 / 문의: 250-3048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사랑나무의원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12-1 (하이마트 민촌점 옆)

- ◆ 말기암 통증/증상 완화
- ◆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적 돌봄
- ※ 재능 및 기타 자원봉사자 상시모집
- 원장 전 은 수(가브리엘)
- ☎ 상담/원 053)217-9500

윤임혜 성형외과

-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 서울의대 성형외과 전문의 2명 진료 (원장 윤용현 바오로, 박성규)
-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 신축이전 (3호선 어린이회관 역)
- T. 053)766-2454 / 2455

www.theopen-daegu.co.kr **관절! 출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T. 555-5520

죽전네거리 서남시장 맞은편

태양광 설치 전문기업

(주)사람과 사람들

가정용 · 산업용 · 발전용

류재천(바오로) 010.6437.8698

대구시 서구 국제보상로 208(2층)

대표 전화 1588-2981

FAX 053)566-8698

평생교육원

(서부교육원 56호 승인)

- ※ 우리의 힘·꿈을 교육합니다.
- ※ 수강생 수시 모집합니다.

원장 박 태 봉(바오로)

대구시 북구 신암로 22(칠성동1가, 3층)

Tel) 053-254-4004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교),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여성건강 전문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오실금클리닉

산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어깨 무료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억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8월 31일(금)은
(故)최영수(요한) 대주교
선종 9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바느 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일시: 8.30(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제1대리구청 강당

관덕정 순교자현양 후원회원의 날 미사

일시: 9.1(토) 17:00
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관덕정 영성 특강: 9.1(토) 16:00
강사: 마석진(프란치스코) 신부
문의: 관덕정, 254-0151

성김대건성당 독서콘서트

일시: 9.1(토) 10:45
주제: 그림에 숨겨진 하느님
강사: 인천가톨릭대학교 윤인복 교수
연주: 클라리넷, 김영학(루카)
문의: 성김대건성당, 742-2504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 리사이틀

일시: 9.8(토) 17:00
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문의: 744-1394(전석 1만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개국 22주년 음악회

일시: 9.9(일) 17:00

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출연: 대구가톨릭필하모닉오케스트라
첼로 김민지, 소프라노 강혜정 외
예매: (3만원, 2만원) 251-2631, 티켓링크

제2회 교구장기 배드민턴 대회

일시: 10.9(화) 9:00~18:00
장소: 대구시민생활스포츠센터
종목: 오전_혼복, 오후_남복·여복
마감: 9.30(일) / (010)3153-7536
다음카페_대구가톨릭배드민턴연합회

교육 | 모임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경공부와 주일 복음 읽기

일시: 9.10~12.3 매주 월 14:00~16: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제강의실
강사: 황하철 신부 / 신청비: 5만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제14차 비다누에바

일시: 10.26(금)~28(일), 푸르실료교육관
대상: 20~40세 미만 미혼
신청: <http://www.dcy.co.kr>
문의: 교구 청년국, (010)7123-5539

대구가톨릭학술원 정달용 신부 초청 특강

일시: 8.30(목) 미사없음
17:00 특강 시작(무료)_마지막회
장소: 푸르실료교육관 4층
주제: 철학적 인간에 대한 특강4
문의: 사무총장, (010)7190-1258

앞산밀북카페 상영영화

첫째주: AFI 선정 100대 영화
둘째주: AFI 선정 100대 영화
셋째주: 월트디즈니 애니 특선
넷째주: BBC 선정 100대 영화
일시: 매주 월 14:00 / 문의: 622-1900

가정폭력관련시설종사자 양성교육 모집

일시: 9.11~11.3 매주 화, 토
주 2회(선착순 접수)
문의: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구대구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253-1401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일시: 10.2(화), 동부유럽 성지순례
경비: 390만원(11박 12일)
일시: 10.3(수), 성모발현지
경비: 425만원(11박 12일)
문의: 428-5004 / www.ctour.org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ME주말

364차 ME주말: 9.7(금) 19:00~9(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채용 | 안내

교구청 관리과 사무직 직원 채용

모집: 대졸, 군필자, 만 35세 이하, 1명
서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교적증명서
마감: 9.7(금) 15:00
제출: 교구청 관리과, 250-3031

Rex Diamond
Legend of Royal
보석 전문점 더 렉스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감사선물·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동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피타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상담치료과정신학회 회장 역임
파타마병원-평화시장 사이
(중전라번대 맞은편)
☎ 053)942-8822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9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나무를 심은 사람
대구광역시 지정 장애인 일자리 사회적기업
수제작 | 수제작
단체주문, 명절선물, 기업선물, 행사답례품
CPBC대구 라디오 포함 지역 라디오 7개사 광고 중
T. 214-0405 www.oljam.com
대구시 동구 아양로52길 35(효목동)
대표 정재욱(이냐시오)

김&송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덕영(스테파노)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사할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갑(아네스)

네이처제통외과
전문의 김태우(시몬)
▶ 관절질환 (어깨, 골반, 무릎, 엘보우, 손목, 발목)
▶ 척추질환 (일자목, 경추맞허리디스크, 협착증)
▶ 영양수액 (만성피로, 비염, 황노화, 지방분해)
진전역 4번출구 E/와야 2층 T. 635-6428

잘보는 안과
DAEGU PREMIER EYE CENTER
문홍재(요한) · 이정호
이태운(미카엘) · 김진선
효성병원 맞은편 1~4층
잘보는안과 빌딩
☎ 053 766 4455